# 전남대 수련원 3곳 모두 스프링클러 미설치

장성 연 1만명 이용…화재 무방비 국립대 10곳 중 7곳에 설치 안돼 고민정 "교육부, 안전대책 마련을"

전남대가 운영 중인 수련원 3곳 모두에 스프 링클러가 미설치 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등 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 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 출받은 '전국 국립대 수련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국 립대학 수련원 10곳 중 7곳(63.6%)에 스프링클 러가 설치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전남대는 ▲장성수련원(1987년 준공) ▲돌산 수련원(1999년) ▲사도수련원(1969년) 등 총 3 개의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성수련원은 연면적 2천760㎡, 2층 규 모의 숙박형 건물로 연평균 1만명 이상이 이용 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1987년 준공 이후 지금 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장성수련원의 최근 3년 이용자는 ▲2023년 1 만1천76명 ▲2024년 1만1천347명 ▲2025년 7천87 4명 등으로 평균 연 1만여명이 숙박·연수를 위 해 찾고 있다.

돌산수련원과 사도수련원 역시 여수 지역 교 직원과 학생들의 연수・워크숍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두 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반면 돌산수련원과 같은 시기인 1999년 준공 된 충남대 대천임해수련원은 스프링클러를 갖 추고 있어 대학 간 안전관리 수준에 격차가 드

앞서 지난 2022년 교육부는 2026년까지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전국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 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대 수련원은 '교육시설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의무 설치에서 제외됐다.

올해 2월 법 개정으로 신축 교육시설과 대학 기숙사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수련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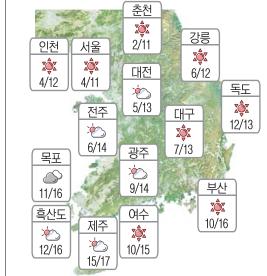
고민정 의원은 "전남대 장성수련원을 비롯한 국립대 수련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이용하 는 공간인 만큼 기숙사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 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뜸 06:49 해짐 17:44 ) 달뜸 12:02 달짐 21:25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9/14	장성	구름많음	8/13
목포	구름많음	11/16	보성	맑음	8/13
여수	맑음	10/15	함평	구름많음	9/15
나주	구름조금	8/14	순천	맑음	8/14
완도	구름조금	11/17	영광	구름많음	9/15
구례	맑음	7/13	진도	구름조금	11/16
강진	구름조금	10/15	흑산도	구름조금	12/16
해남	구름조금	10/15	고흥	맑음	9/16
광양	맑음	9/15	담양	구름조금	7/15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0	1.5-3.0		
시에 남부	먼바다(북)	1.5-3.5	1.5-3.5		
급구	먼바다(남)	1.5-3.5	1.5-3.5		
남해	앞바다	1.0-2.0	1.0-2.0		
	먼바다(동)	1.5-2.5	1.5-2.5		
서부	먼바다(서)	1.5-3.5	1.5-3.5		

●물때

디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b>⊒</b> π	04:48	10:00	여수	11:59	05:11	녹동	12:46	06:04
= 土	17:36	22.48		23:49	18:12			19:34

●생활정보지수



●주간 날씨

28일(화)	29일(수)	30일(목)		
<b>ൂ</b> (6/15) 맑음	<b>호</b> (6/18) 맑음	(8/20) 구름조금		
31일(금)	11월1일(토)	2일(일)		
(10/19) 구름많음	(8/17) 구름조금	<b>ॐ</b> (9/16) 맑음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30분 신관 착공식에 1천650만원…'과다'"

#### 김귀성 북구의원, 혈세 낭비 지적

광주 북구가 단발성 행사에 과도한 혈세를 사 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 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문을 통해 김 귀성(사진) 의원은 "올해 북구 주관 행사는 212 건으로 3년 새 20% 이상 증가했다"며 "주민참 여형 프로그램성 행사보단 착공식·준공식·선 포식 등 보여주기식 단발성 행사에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 투입됐다"고 지적 했다.



이어 "북구청사 신관 착공 식의 경우 고작 30분 행사에 1 천650만원이 투입됐다"며 "구청장 치적 홍보를 위한 과 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단 신관 개선 사업에 힘써야 했

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신관 착공식에 과도하게 집 행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지난해와 올해 사이 생활SOC 등 각종 시설 조성 사업이 집중 추진 되면서 관련 행사가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 했다. /안재영기자

## 광주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 비율 30%→50%…일부 "특권학교 우려"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이 반대 여론 속에서도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 의를 열어 정무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외국 인학교 내국인 입학 완화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회기에서 교육문화위원회 가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으 나, 이번에는 유아 입학을 제외한 수정안을 상 정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외국인학교 입학 시 내국인에 게 요구되던 '3년 이상 해외 거주' 요건을 폐지 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어 조기 교육 목적의 유치원 입학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초·중·고교 과정만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교육 시민단체는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해 특권 학교가될수있다"며반발했다.

### 광주경찰청 '치안 성과' 전국 3위

시·도경찰청에 선정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80주년 경찰의 날 (10월21일)을 맞아 경찰청이 실시한 '치안성 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전국 18개 시·도경 다"고 말했다.

찰청 중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은 매년 경찰의 날을 맞아 주요 정책, 광주경찰청이 올해 치안 성과 평가에서 우수 대내외 협업, 적극 행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상위 3개 시·도경찰청을 포상한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시민의 안전을 보다 든든히 지키겠 /안재영기자



+

들이객들이 가을 햇살 아래서 편한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고 있다.



